

말라기

말라기서는 예언서 전체를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성경에서도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마지막에 배치된다. 이는 '나의 사자'라고 부르는 말라기 예언자와 예수님의 활동 이전에 활약한 '세례자 요한'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편집 의도를 반영한다.

1. 말라기 소개

1) 이름의 뜻:

선지자 말라기에 대해서는 이 책 외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3:1)이다.

2) 활동기간:

말라기는 주전 5세기 중반 이후, 즉 480/46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¹⁾ 이 예언서에 따르면, 백성은 이미 유배에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졌으며, 예식을 다시 거행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된 것으로 보아, 유배 이후 제 2성전이 완성된 주전 515년 이후에 쓰였을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이방인과의 혼혈혼 문제에 관한) 에스라의 대개혁은 아직 시작하기 전으로 보인다. 이 개혁은 주전 440년경에 가서야 실행된다.

2. 역사 배경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하나님의 물질의 복은 실현되지 않고 또 고대의 인과응보사상도 그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세태가 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2:17). 그리고 "그들이(열왕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엎드릴 것이며, 네 발의 먼지를 닦아 줄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사 49:23)라는 제 2이사야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유다는 페르시아의 조그마한 속국으로 정치 억압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다.

1) 저작 연대를 주전 5세기 중반으로 보는 많은 증거가 있다. 이 시기는 학개와 스가랴가 일으킨 초기의 희망들이 물거품이 되면서 일어난 무관심과 환멸의 시대이다. 제사장은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였고 (1:6-2:9) 이혼하고 나서 이방 여인과 재혼하는 일들로 민족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며(2:10-15), 십일조와 봉헌물도 소홀히 하였다(3:6-12). 이런 문제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기간 중에도 언급된다(주전 약 400).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추정에 불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로기 후기의 귀환 공동체가 당면한 커다란 시련은 이방문화의 위협이었다. 외세의 압력은 결국 전통 토라(율법)와 제의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도이취는 말라기서가 보여주는 사회상황은 도덕성의 해이로 옳고 그름의 판단 분별의 혼돈과 이혼 및 잡혼의 성행 그리고 여기에 부수된 전통적 신앙의 약화 등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정세하에서 말라기는 유대인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의 정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억압

제2 이사야(이사야 40-55장)의 희망은 도래하지 않고, 유다는 그저 페르시아의 작은 자치구로 존재하며 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었다.

2) 성전 제의에 대한 비관적 태도

제의 습관에 대한 나태와 이완도 큰 문제였는데(1:6-2:9; 3:6-12),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유층은 제물의 일부를 덜 내거나 조악한 제물을 바치는 잔꾀를 부렸다. 특별히 말라기는 현재의 갈등이 지도층 간의 계급 투쟁에 있다고 보고 현재의 성직 그룹이 와해되고 개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이방 문화의 위협(결혼/이혼의 남용)

귀환 공동체가 당면했던 가장 큰 위협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다(2:10-16). 혼혈결혼은 전통 신앙의 약화로 인한 도덕성의 해이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분별력(정체성) 상실까지 유발시켰다. 특별히 유다 지도자들과 사회적 신분 상승을 꾀하고자 하던 이들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였기에 더욱 문제가 되었다. 말라기서는 혼혈혼과 이혼을 엄금하고 있다(2:10-16).

3. 말라기의 구조와 간추린 내용

주제		구절
6개의 논쟁	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1:2~5
	② 제사장들의 성의 없는 직무수행 비판	1:6~2:9
	③ 잘못된 혼인(이방여인)	2:10~16
	④ 악인들의 변명과 하나님의 공의 문제	2:17~3:5
	⑤ 십일조와 헌물의 문제(회개)	3:6~12
	⑥ 악인들의 변명과 의인의 고난 / * 여호와의 심판 날!	3:13~4:3
경고	율법, 엘리야! (*눅 1:17, 마11:14과 연결)	4:4~6

* 제2성전기의 안이해진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한 책망(6개의 주제 논쟁)+경고(여호와의 날) 엘리야!

1)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1:1-5).

첫 번째 신탁은 절망에 빠진 동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말씀이다. 페르시아의 지배 하에서 수탈당하고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선민인가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말라기는 나바티안족의 습격을 받아 황폐케 된 에돔을 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에돔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며(1:2) 여전히 당신 백성에게 신실하시다고 한다.

2) 아예 성전 문을 닫아걸었으면 좋겠구나(1:6-2:9).

두 번째 신탁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젓밥에만 신경 쓰는 거짓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것이다. 신명기 법전은 흠 없는 짐승만 제물로 바치도록 규정하였지만(신 15:21),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이 규정을 무시하였다. 또한 자식은 부모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지만, 제사장들은 아버지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것(1:6)은 큰 죄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제사장의 본분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한다.

3)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라(2:10-16).

세 번째 신탁은 이방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방신 숭배를 도입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12). 하나님은 이방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는 것도 허락치 않으신다(16).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거나 조강지처와 이혼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한다. 잡혼(雜婚)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며, 이혼 역시 아내와의 약조를 저버리고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부정을 저지르기에 속죄제 때 울고불며 예물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결혼의 신성함을 되새기게 한다.

4) 사자를 보내어 나의 길을 닦으리라(2:17-3:5).

네 번째 신탁은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공의가 왜 실현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올 것이며, 그는 우선 제사장들을 정화할 것이며 하나님께 올바르게 제사하도록 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전한다. 그를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성전에서 이스라엘에게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가난하고 권리 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시리라고 대답한다(3:5).

5)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3:6-12).

다섯 번째 신탁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바치는 이들이라고 말한다. 말라기는 가뭄과 흉작은 백성들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은 탓이라고 보고(10), 백성들이 그 몫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출을 풍성케 하며(11),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고 한다(12).

6) 내가 나서는 그날이 오면(3:13-4:3).

여섯 번째 신탁은 네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 회의를 느끼는 이들에게 실망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고 알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날이지만(3:17-18),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된다고 한다(4:1).

7) 편집후기(4:4-6).

예언자 엘리야가 주님의 날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날이 오기 전에 오는 예언자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화목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한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모세를 시켜 백성에게 내린 법과 계명을 충실히 지키도록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²⁾

4. 신학적 주제들

1) 국수주의와 형식적 예배 비판

말라기서에서는 요엘서나 오바다서에 등장하는 국수주의적 사상(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 자기 나라의 국민적 특수성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남의 나라의 것은 배척하는 이데올로기)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온다는 보수적 선민의식이 다시금 강조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에돔의 멸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다(1:2-5). 이러한 국수주의 혹은 민족주의적 노선은 혼혈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놓는다(2:10-16). 특별히 말라기는 희생제물, 십일조, 성전 직무자들의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경외심과 사랑이 배제된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비판한다(1:6-14). 형식적 제사 의식보다 마음을 다한 진실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잘못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1:6-8),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백성(3:6-12)이 고발당하는데, 성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학개와 스가랴의 신탁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하다.

2) 하나님의 공의

제2 성전 건축 이후 이스라엘 사회 안에 만연하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자체에 대한 회의는 유다 공동체를 암울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불평이 인간 역사 안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다. 말라기는 평화의 부재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2) 스미스는 말라기에 ‘사랑’, ‘공경’, ‘신실성’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신명기의 영향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창조주(2:10)이시기에 종국에는 악의 세력을 패망시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피력한다(3:19-21). 아직 구원의 때는 이르지 않았으나 언젠가 주님의 날이 오면, 인간의 죄는 종식되고 의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2:17-3:5).

3) 구약성경에서의 위치

말라기서의 맺음말인 4:5에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언서 부분의 마지막이 엘리야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언자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엘리야가 불 병거의 불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통(왕하 2장)은 그가 언젠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통을 형성하고 이를 전승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전승의 영향으로 신약성경에서는 광야 전승 안에 세례자 요한과 엘리야가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요한과 예수님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요한과 예수님께 그들이 바로 엘리야인지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광야에서의 활동과 나인성에서의 과부의 아들이 되살아나는 기적(눅 7:11-17)은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왕상 17:8-24)를 연상하게 하고, 감람산에서 받은 천사의 위로(눅 22:43)는 엘리야가 만났던 천사의 시중(왕상 19:5-8)을 기억하게 하며, 불을 지르러 왔다는 언급(눅 12:49)은 엘리야의 심판하는 불(왕하 1:10,14)을 반영합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변모에서도 엘리야가 등장합니다(마 17:1-8; 막 9:2-8; 눅 9:28-36). 이러한 내용들은 말라기서가 왜 구약성경 마지막에 배치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주님 앞에 등장할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 전승 안에서 이해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5. 메시지

1) 포로기 이후 예언서의 특색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1) 말라기서는 요엘서나 오바다서와 마찬가지로 극도의 유다 중심적인 국수주의 사상을 강하게 담고 있다. 말라기는 에돔의 멸망을 유다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표시로 삼고 있다(1:2-5). 또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2:10-12). 이 같은 국수주의적인 국가지상주의가 포로기 이후 시대의 예언서의 특색이라고 뉴섬은 보고 있다.

(2) 제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다.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드리는 제사장들(1:8)과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백성들(3:8-9)은 책망을 듣게 된다. 말라기의 이 같은 특색은 이스라엘이 처한 시기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제의 준수를 통해 자신의 명맥을 보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2)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강조한다.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

상에 공의가 있는가? 등의 기본적인 회의가 팽배해져서 종교적인 신념과 확신이 해이해지게 되었다고 본다. 이 같은 회의가 사회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어 도덕적 회의와 기회주의적 물질주의가 판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계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다.

3)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2:10), 이방인들도 주님을 섬긴다고 보았다(1:11).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결국 망할 것이며(4:1), 의인들은 구속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4:2).

4) 거룩하신 하나님은 순결한 예배를 요구하신다.

말라기는 도덕의 순결보다는 제의의 순결을 강조하지만, 결국 올바른 예물을 바치는 깨끗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다.³⁾ 조강지처를 지키며 약한 자를 도와 공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며 서약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새기기>

1.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고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신앙에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어느 때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게 되는가?

2. 말라기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어른들과 자식들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려 화목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고한다. 우리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에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3) 도이취는 말라기의 주요 관심이 올바른 제의이며, 제의의 토대는 '토라'(2:6-9)에 있다고 한다. 도이취는 여기의 토라는 제사, 결혼, 십일조, 보응 등 모든 생활에 대한 지침이라고 보았다.